

□□□ □□□□ □□□ □□□ □□ □□□ <□□□□
□□> □□



불완전한 인간
이탈 | 인세인박 | 박종영 | 송희정 | 김유석

2017.03.23^{Thu} _ 04.28^{F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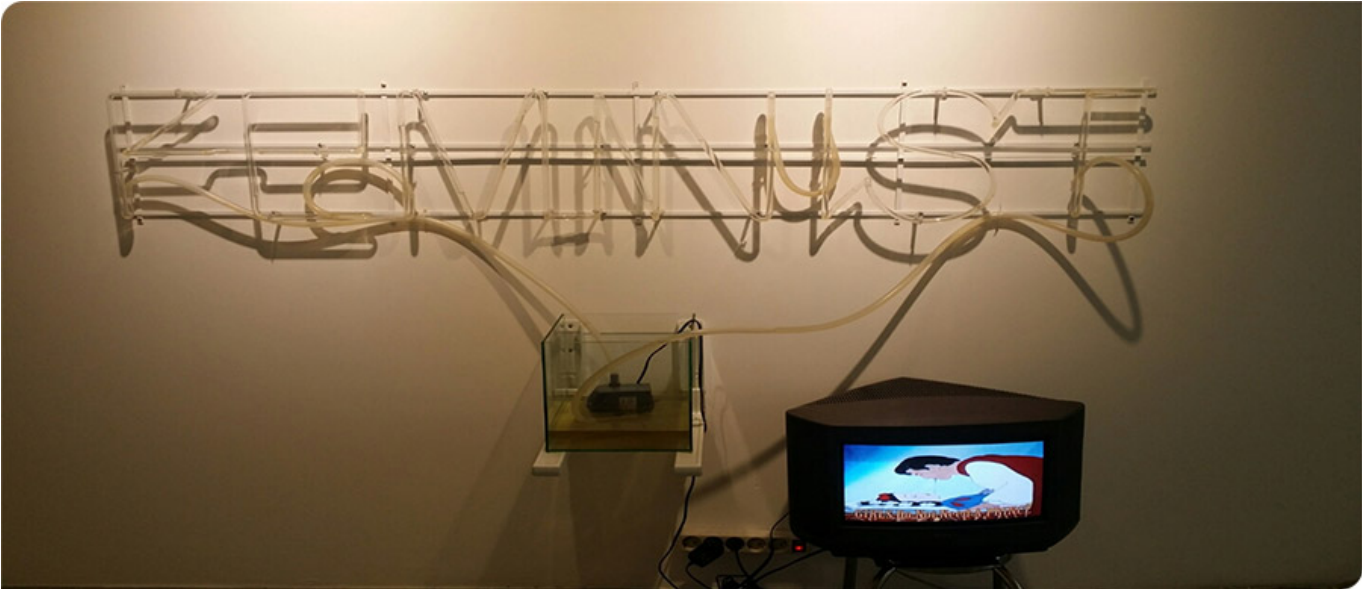
| 주 최 |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 후 원 |  코리아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 장 소 | 우리미술관 전시관

| 문 의 | 032.764.7664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 전시관 ‘불완전한 인간’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이철, 박종영, 송희정, 김유석의 작품이 소개된다. 이철의 작품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주제로, 송희정의 작품은 인간의 감정을 주제로, 김유석의 작품은 인간의 존재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전시 기간 동안 우리미술관 전시관을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관을 둘러보길 바란다. 문의: 032.764.7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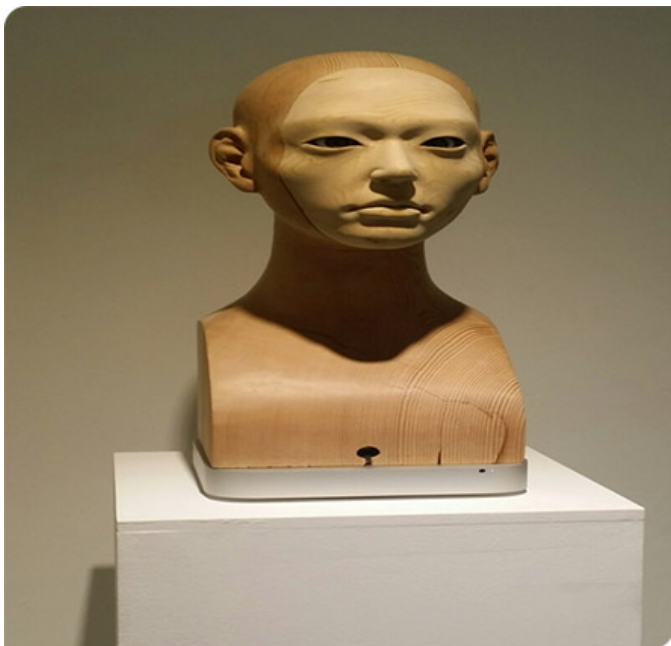
([Title], [Artist])

[Description text]



([Title], [Breath])

이 작품은 <Breath>로,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 입에는 작은 빨간 꽃이 꽂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작품, [Marionette-eye])

이 작품은 <Marionette-eye>로,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 입에는 작은 빨간 꽃이 꽂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작품, [This Work Has No Ideology])

이 작품은 <This Work Has No Ideology>로,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인형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인형의 눈은 닫혀 있으며, 입에는 작은 빨간 꽃이 꽂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형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